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16.(월) 11:00 < 1.17.(화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16.(월)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	책임자	과 장 조웅환(044-203-4310)
	기계로봇항공과	담당자	사무관 김기열(044-203-4311)

2023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

- 수출 흑자 달성과 새로운 도약 다짐 -

-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업계의 노력 당부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)와 **한국기계산업진흥회**(회장 손동연)는 **1.16(월)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**에서 기계산업 산·학·연 관계자 250여명과 함께 **「2023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」를 개최하였다.**

○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이 참석해 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.

< 2023년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요 >

○ 일시·장소 : 2023.1.16(월) 18:00~19:30 /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(2층)

○ 주요 내용 : 신년사, 떡케이크 커팅, 기념영상 시청 등

○ 주요 참석자 :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,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손동연 회장, 기계연구원 박상진 회장, 대한기계학회 윤의성 회장, 생산기술연구원 이낙유 원장, 현대로템 이용배 대표 등 250여명

□ 장영진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**2년 연속 일반기계 수출 500억불을 돌파**하며 **플러스 성장**(2.1%)**을 달성**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**기계산업인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.**

* 수출액(억불) : ('09) 260 → ('18) 535 → ('19) 525 → ('20) 479 → ('21) 501 → ('22) 511

○ 주력 시장인 對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(△15.1%)했지만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아세안·중동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게 된 것은 기계산업인의 각별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.

□ 이어 장 차관은 "올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**수출과 투자의 위축, 자국 우선주의, 에너지위기 지속** 등으로 **경기와 투자심리에 민감한 기계산업**의 **불확실성이 높은 상황**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"면서

○ "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그 어느 때보다 **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**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"고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, 산업부도 제조업의 근간이자 수출 주력산업인 **기계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재도약**할 수 있도록 **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** 강조하였다.

□ 장 차관은 우선 **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금융**(360조원), **해외마케팅 및 인증 취득 지원**(약 1.4조원),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연계한 **해외 판로 개척** 등을 통해 **수출 플러스 달성을 총력 지원**하고,

○ 중장기적으로 **기계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**을 통해 **제조업 전반을 첨단화·고도화**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.

□ 올 한해 유망 신산업에 필요한 **첨단 제조장비 혁신개발 로드맵 마련**, **자율작업형 기계·장비 및 친환경 동력원 개발**, **한국형 산업제어시스템의 성공모델 창출**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,

○ 핵심기술 내재화(1,500억원 규모 R&D 투자), CNC 국산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**공급망 안정화에도 주력**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